

세상의 도성에서 예수와 만난 사람들 * 3/16(화) 사도행전 22-25장

베드로 (1-12장)		바울 (13-28장)
예루살렘 (1-7장)	유대와 사마리아 (8-12장)	땅 끝 (13-28장)
복음의 성장 승천, 오순절 성령, 선포와 표적, 일곱 집사 1-6장 스테반 순교, 핍박과 박해, 선포와 표적 7-8장 1-4장 거룩한 영, 성령이신 5-7장 성전보다 크신	복음 확장의 초석 사울의 회개 9:1-31 베드로와 고넬료 9:32-11:18 안디옥 교회 11:19-30 베드로 투옥, 헤롯의 죽음 12장 8-10장 부활하신 11-13장 온 세상의 주님이신	복음의 확장 1차 여행, 예루살렘회의 13-15:35 2차 여행 15:36-18:22 3차 여행 18:23-21:16 핍박, 잡힘, 상소, 로마행 21:17-28장 14-17장 새 언약이신 18-21장 힘이요 능력이신 22-25장 세상의 도성에서

Before 즐치며 읽기

바울과 만난 사람들의
성품과 이해관계들을
살펴보며 읽습니다.

After 묵상하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주기도문을 묵상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참고도서

백주년기념성서주석
모든 사람을 위한
사도행전(툼 라이트)
바울평전(툼 라이트)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행22:25)”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는 부분은
읽을 때마다 영화의 반전처럼 통쾌함을 안겨줍니다.
마치 암행어사가 출두한 것 같은 장면입니다.
결박되고 채찍을 맞은 바울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깜짝 놀란 로마 병사들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만일 바울이 시민권자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천부장은 바울이 소란의 중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영내로 데려가 채찍질하고 심문하려 합니다(22:24).
법적인 재판이나 판결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늘 상 하는 일, 시민권이 없고
힘없는 피지배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특권을 지혜롭게 사용했습니다.
극심한 고난을 셀 수 없이 겪었던 바울이라
그가 그나마 피할 수 있었던 몇몇 상황들이 반갑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행이라고만 넘길 수 없는
<세상의 도성>의 악과 비열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얼 하고 계시는가?”
바울은 <세상의 도성>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시민이었습니다.
천부장은 그 사실을 알고부터 바울을 선대했습니다.
그는 기병과 경무장 호위병 등 270명으로 바울을 철통같이 보호합니다(23:23).
바울을 보호하겠다는 선의라기보다, 로마 시민인 그를 결박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문제를 삼으면 파직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 40여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겠다며 맹세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살인의 암묵적 동조자였습니다(23:14).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 섭니다.
노예 출신이었으나 글라우디오 황제의 총애로 총독까지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귀족들의 시기와 멸시도 아랑곳 않고 자기 영리를 쟁취하는 약삭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총독으로서 지역을 폭동 없이 치리해야 했기에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헌금을 모금한 것을 알고 뇌물을 바라며 사안을 미룹니다(24:25).
임기를 마치는 ‘빈 손’의 벨릭스는 굳이 바울에게 좋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라도 얻자는 심정으로 바울을 구류해 둡니다(24:27).

새 총독 베스도는 바울의 일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 했지만(25:9),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하겠다고 로마행을 결정해 버렸습니다.
베스도는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던 마음을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25:20).
황제에게 보낼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요지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베스도는 이 일을 알만한 아그립바 왕에게 보이기로 결정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나 로마인에게나 골치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관례대로, 유연하게, 서로 좋은 선에서 끝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바로 잡으신다>는 믿음에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 도성>의 악과 비열함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범사에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23:1)”

<세상의 도성>에서 예수와 만난 사람들은
악과 비열함에 타협하거나 상황을 비관하여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합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로 떠납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23:11).”